

KT '디지털-X 서밋'... 디지털 전환 미래 논의

KT 구현모 대표·박윤영 사장 기조연설

KT는 국내외 디지털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 전환의 인사이트를 교환하는 '디지털-X 서밋 2020'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엔 KT 구현모 대표와 박윤영 사장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 BC카드 임세현 빅데이터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KT 구현모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기업부부장 박윤영 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올해 최초로 열리는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통한 시장 변화와 기회를 KT와 함께 열어가자는 비전을 발표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KT

이어 KT 기업부부장 박윤영 사장이 연단에 나와 그간 KT B2B의 성과와 KT가 보유한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활용해 산업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

한 시장 확대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DX)이 바꾸는 비즈니스 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강연을 마친 후에는 KT 김희수 경제경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DX를 통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대한 패널 토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DX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주제로 진행된다. KT 클라우드·DX 사업단의 운동식 전무가 KT만이 가진 DX 플랫폼의 차별화 역량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BC카드 임세현 빅데이터센터장이 AI와 융합하는 빅데이터의 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T의 DX 추진 전략에 따른 파트너사와의 협업에 대해 KT 민혜병 기업사업전략본부장과 협력사들이 발표를 이어간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카뱅 40조 vs 리딩뱅크 17조



기지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한카카오뱅크(이하 카뱅) 직원이 퇴사를 했더니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카뱅 주식을 서로 자기에게 팔아달라는 연락이었다.

카뱅은 지난해 직원들이 주당 5000원에 우리사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퇴사하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량이 귀하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카뱅 퇴사자를 수 소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가가 화제가 됐다. 인터넷은행의 주가도, 시중은행의 주가도 말이다. 그런데 화제가 된 이유는 정반대다. 한 곳은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주가 고평가 논란의 주인공 카뱅이다.

카뱅이 기업공개(IPO)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10만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발행주식수 3억6509만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40조원에 육박한다. 성장성을 고려해 은행 주로는 후한주가순자산비율(PBR) 3배 안팎을 적용해도 시가총

액은 9조원이다. 장외시장 주가가 한참 앞서나간 셈이다.

다음은 시중은행들의 주가다. 금융지주들 가운데 '리딩뱅크'로 꼽히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도 각각 17조원, 15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PBR은 KB금융이 0.41배, 신한지주가 0.35배로 자산가치만큼 대접을 못받고 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주가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고,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역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카뱅과 시중은행의 주가를 가른 것은 향후 성장성과 경쟁력이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세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틈새시장을 노리는 '니치 플레이어'가 아니라 2030세대를 장악한 리딩뱅크가 될 것이란 얘기다.

한 금융지주 디지털총괄 임원을 만났더니 인터넷은행을 평가절하했다. 기존 뱅킹업계가 좀 쉽고 빠르지만 할 뿐 시중은행이 따라하지 못할 새로움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아주 조금 더 쉽고, 빠르다는 이유로 고객은 카뱅 앱을 깔고, 다시는 느려터진 은행 앱을 열지 않는데 말이다.

/smahn1@

기보, 부산 공기관과 드라이브스루 자선행사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자선행사를 연다. 기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일깨우고 부산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단체 세이프 더칠드런, 부산지역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부산항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드라이브스루 자선행사인 '다함께 차차차'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3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될 '다함께 차차차'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부산시민들이 함께 '차를 타고, 차칸 마음을 전하는, 차칸 소비를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채소, 과일, 잡곡, 수산물 등을 꾸러미별로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



구나 자선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48년생**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6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2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84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37년생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행동. **49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1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인부를 챙겨라. **73년생** 상대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지 마라. **85년생** 어디서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38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장식. **5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해야. **62년생** 나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74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86년생**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39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51년생** 오랜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63년생** 자기중심에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75년생** 모르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87년생** 늦지만 남들을 이롭게 한다.

40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52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 **76년생** 독단적인 일처리로 타인의 원망을 듣는다. **88년생** 레일을 벗어나지 말고 걸어라.

4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53년생** 이동 운이니 산소방문도 무탈. **65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7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설득. **89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면 된다.

42년생 두드러도 열리지 않으면 애쓰지 마라. **54년생**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야 한다. **6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8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조금 더 노력. **90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일도 풀린다.

43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라. **55년생**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67년생**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생각. **79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91년생** 한 번에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44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56년생** 원하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복병을 조심. **68년생**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다. **80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간다. **92년생** 흘러간 세월을 그리워 말고 내일을 준비.

45년생 기죽지 말고 살아라. **57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69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다시시켜. **8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9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4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58년생** 민망한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맞서라. **70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쁨이 온다. **82년생** 결심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94년생** 초심을 생각하고 힘내라.

47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포기. **5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하 하루. **71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83년생** 당신 자신을 등 돌보 심아 앞으로 나가라. **95년생**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게 되니 이익.

Advertisement for 'Sudoku 365' and 'BTS Kpop Kings' featuring a QR code, a grid, and a book cover.

김상희의四季 고부간 갈등 심한 편인살(1)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라 감히 편인살을 논하기가 맞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할 말 다하고 수틀리면 남편과 아이들만 시대에 보내며 자기 편한 위주로 하는 며느리들이 대세인 까닭이다.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고깝게 듣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를 일러 필자는 후천운의 질서에 편입한 지구촌의 현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가끔은 시집 기운에 놀러 얼굴이 어두운 며느리들도 보게 되는데 며칠 전 상담을 온 L여인이 그 경우였다.

L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 같은 분이 없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아들이라면 끔찍이 여기며 온갖 정성을 다 쏟는 어머니이니 어머니에 대한 아들들의 생각이 다 그러할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자애롭고 아들이라면 목숨마저 내놓을 듯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인 어머니는 며느리에게는 매운 고추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심리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이 다양하지만 L여인의 시어머니는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이중성을 지닌 분이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며느리인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투와 교양 있는 어른의 모습이지만 며느리만 있을 때는 눈까지 흘려가며 공연한 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성질에 못 이겨 욕까지 다반사라는 것이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혜롭고 자상한 분이데 무슨 그런.. 그리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는 반응이다.

이에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주말만 되면 시댁에 하루이상 보내고 와야 하는 것이 고역이 되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Advertisement for 'metro' magazine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